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생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권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2011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011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그 길을 걷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지혜를 대표합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요 3:1). 그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본받기를 원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적인 지혜는 영적 지혜를 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비밀, 즉 참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요 3:4-10).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 열의, 판단력이 우리를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코 세상적인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전 2:14-15).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심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니고데모는 구원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요 19:39).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요 3:3).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이것은 거듭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아멘.

회개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자
마 4:17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자
마 16:24

거듭남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종이 되자
요 3:5

복음전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자
행 1:8

PRESS ON TOWARD THE GOAL

⁽¹²⁾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it or have already become perfect, but I press on so that I may lay hold of that for which also I was laid hold of by Christ Jesus.

⁽¹³⁾Brethren, I do not regard myself as having laid hold of it ye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¹⁴⁾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2-14)

Last year has passed and a new year is here. It's a good time to reflect on our primary goal in life, taking inventory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today's Bible verses Paul explains his strategy for reaching his number one goal. Paul is the author of many books in the New Testament, so we can consider him a trustworthy source. He was a great Christian who offered great godly lessons. His heartfelt proposal for pressing on toward the goal of life involved past regret, the present race, and the promised reward.

What should we do about regret? Every Christian has regrets because we all make mistakes. We tend to replay our errors, but the past is the past. Concerning his resurrection, Paul said,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it or have already become perfect, but I press on so that I may lay hold of that for which also I was laid hold of by Christ Jesus. Brethren, I do not regard myself as having laid hold of it ye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Phil. 3:12-13). Paul forgot the past! For many years he had persecuted Jesus, but Jesus caught him and gave him orders and he repented and listened (Act. 9:4-6). Even though Paul hadn't achieved or gotten anything yet, he still let go of the past. How should we deal with last year's blunders? All we have to do is confess our sins and be forgiven,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1 Jn. 1:9). Like Paul, we can totally let go of all our sinful memories. Christ's blood can clear our conscience, "how much more wi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blemish to God, cleans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Heb. 9:14). Doesn't this give us encouragement? Please leave all your past failures with the Lord, whether sins that might overwhelm or good things that might cause one to rest on his/her accomplishments, and forget about them. Leave the past behind.

How should we run life's race? Paul emphasize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Phil. 3:13). Paul approached the future with anticipation and faith. He was eager to see what he could achieve for Christ. Think about how many times he was interrupted by imprisonment, beatings, and slander. Here are the facts that you and I must face; we will always have problems. Our problems will either be problem conscience or power conscience. Problem conscience situations revolve around discouragement and depression over not being able to do something and power conscience situations center on encouraging ourselves to do things on our own. We approach each day expecting the best or the worst, which is sad. Christians shouldn't run the race of life that way. We should run the race of life with faith only. 2 Timothy 4:6-8 says,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in the future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Paul kept the faith in two senses; he was obedient to it and he passed it on as he received it. His faith came from God's word, not his past experiences. Living by faith means denying self. No matter which way the Spirit leads there will always be problems and persecutions, "If the world hates you, you know that it has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If you we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chose you out of the world, because of this the world hates you"(Jn. 15:18-19). When you practice faith, you will have peace in the midst of tribulation,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Rom. 5:1). If you deny your own opinion then the Holy Spirit can talk to you,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Jn. 16:13). Faith is the key to running the race of life. All Christians must live by faith. Faith and fear are opposites, but faith wins and fear loses. Faith conquers fear.

Why should our goal be the promised reward? Throughout all his hardships, of which he had many, Paul proclaimed,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Phil. 3:14). Paul was determined to hold back nothing from the Lord. He was a fully surrendered man. He was consistent in his Christian walk. He understood the value of eternal life. Jesus promises to reward all His faithful servants, "Behold, I am coming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render to every ma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Rev. 22:12). Eternal rewards are more valuable than anything this world has to offer. The prize of resurrecting from the dead and living in God's presence forever is the result of glorifying God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which is the sole purpose of this life.

My dear friends, please don't be proud of what you have or depressed over what you've done badly. Let's forget those things that are behind, and let's reach forward to all the things to come. The future is fantastic for you and me as believers. Indeed, the best is yet to come! Ponder for a moment 1 Corinthians 2:9, "Things which eye has not seen and ear has not heard, and which have not entered the heart of man, all t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You and I have this wonderful secret, and we are soon going to reap the benefits of our faith in Christ beyond our imagination. Knowing this, I hope you join in Paul's strategy and live this year by faith. Amen. ■

꽃대를 향하여

¹²²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¹³³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있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¹⁴⁴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2~14)



김성관 목사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삶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제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중 여러 권을 쓴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고는 믿음만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적인 말씀을 가르쳐 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의 진심어린 권고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의 삶 그리고 상급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있어버리고

우리가 회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한 것을 회회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기에 관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있어버리고”(빌 3:12~13)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다. 수 년 동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 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놓아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셨습니다(행 9:4-6). 심지어 바울은 아직 그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얻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 왔던 모든 것이 죄악에 없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죄의 기억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4).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었든지 선한 일을 이루었다는 성취감 속에 안주하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실수들을 맡기고 그것들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들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우리는 삶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 3:13)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비난 받으며 매 맞고 감옥에 갇혀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반면 우리를 강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의기소침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원동력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역동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희미 또는 희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픔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삶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

서 4:6~8은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복음에 순종했고, 다음으로 자신이 받은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했기에 그의 믿음에 과거 경험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부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항상 문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뱉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는 그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믿음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이기고, 두려움은 패배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우리의 목적이 하늘의 상급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겪은 많은 환난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선언했습니다.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 바울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삶의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영원한 상급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한 것을 자랑하거나 또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있어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신자인 우리의 미래는 환상적일 것입니다. 진실로,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9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을 깨닫고라.”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을 초월하는 믿음의 상들을 우리는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

2011년,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2011년에 드릴 모든 예배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예배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환(장로, 예배위원장)**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단 9:19)**

한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다. 김구영(장로, 제3교구위원장)

연세 함양능력개발을 위한 법률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개발이 주민 은혜로 잘 진행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센터로 쓰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신국(장로, 함양능력개발추진 위원장)**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신 분은 새가족을 포함해 누구나 단기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매의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닌 기도로 준비하는 시점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여 십자가가 잊히지 않게 하자' (고전 1:17). **백용선(장로, 선교위원장)**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치기의 삶(마 6:24)을 살며, 물질을 섬기기보다 물질을 관리하는 헌신적인 정치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송두실(장로, 재정위원장)**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회와 부서의 회계 업무 담당자들은 매사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훈(장로, 감사위원장)**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며 예쁜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만을 증거 하는 제3교구위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경호(장로, 제3교구위원장)**

온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시 108:1). **홍기영(장로, 찬양위원장)**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오직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광수(장로, 기독위원장)**

2011년에, 주님은 다시 한 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복음 증거인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힘써 왔는지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제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 뜨겁게 복음을 외치기 원합니다. **지우경(장로, 전도위원장)**

복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경꾼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구와 부서를 겸손히 섬기길 소원합니다. **김태식(장로, 담회부서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만 붙들고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십자가 복음으로 든든이 세워지는 중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용용(장로, 담회부서기)**

새가족들이 십자가 복음에 굳건히 서고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과 운영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등록 접수부터 양육 과정, 정착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새가족 중심으로 바꾸어 한 영혼이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식(장로, 새가족영양위원장)**

영문구원, 천국입관 양성, 영적부흥을 중심으로 미래 중언교회의 주인인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주인의식을 갖고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석영(장로, 제2교구위원장)**

영혼을 살리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일꾼들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권영옥(장로, 권육위원장)**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재승(장로, 행정위원장)**

나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정철환(장로, 봉사위원장)**

말씀과 찬양 속에서 심령이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애가 되길 기도합니다. **정선환(장로, 제3교구위원장)**

2011년 교회 주요행사 일정

2011년

교회 주요행사 일정

신령한 예배 · 천국일꾼 양성 · 민족복음화 · 세계선교 · 이웃사랑

날짜	행사명	날짜	행사명	날짜	행사명
1월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경로심방 단기선교팀 1 (토) 신년감사예배 2 (주일) 성찬식 (1차) 5 (수) 정기당회 23 (주일) 선교주일	22 (금) 24 (주일) 5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1 (주일) 성찬식 (4차) 4 (수) 정기당회 8 (주일) 어린이 · 어버이주일 (가족연합예배)	성금요일 (성찬식 3차)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학습세례식 (2차)	7 (수) 10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5 (수) 정기당회 21 (금) 피택창로 (주제발표) 23 (주일) 학습세례식 (5차) 26 (수) 임직예배 (장로/안수집사/권사) 28 (금) 청지기훈련 (3차) 30 (주일) 종교개혁주일	교회설립기념주일 (가족연합예배)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제74기 교사양성부 개강 (11/20 종강) 제44기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11/20 종강) 정기당회 수요성경공부 2학기 개강 (11/23 종강) 후반기 충현전도대 훈련 (11/23 종강)
2월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전반기 충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경로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9 (수) 정기당회 25 (금) 청지기훈련 (1차) 27 (주일) 학습세례식 (1차)	6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8 (수) 정기당회 12 (주일) 제직회 성령강림주일 (오순절) 청지기훈련 (2차) 24 (금) 학습세례식 (3차) 7월 여름성경학교 /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3 (주일) 성찬식 (5차) 6 (수) 맥추감사주일 정기당회		11월 신년도 예산안 심의 신년도 직분자 심의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6 (주일) 성찬식 (7차) 16 (수) 정기당회 20 (주일) 추수감사주일 (가족연합예배) 추수감사 특별찬양예배	
3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6 (주일) 성찬식 (2차) 제73기 교사양성부 개강 (5/22 종강) 제43기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5/22 종강) 9 (수) 정기당회 (일꾼 추천) 수요성경공부 1학기 개강 (5/25 종강) 전반기 충현전도대 훈련 (5/25 종강) 제의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20 (주일) 일꾼 후보 공고 (주간충현) 27 (주일) 공동의회 (일꾼 투표)	8월 여름성경학교 /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0 (수) 정기당회 28 (주일) 학습세례식 (4차) 9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4 (주일) 성찬식 (6차)		12월 절기구제 (성탄) 단기선교팀 파송 7 (수) 정기당회 (예 · 결산) 18 (주일) 특별 제직회 은퇴자 시상 22 (목) 성탄축하 찬양의 밤 (제1·3교육위) 23 (금) 성탄절기념음악회 25 (주일) 성탄절감사예배 학습세례식 (6차) 공동의회	
4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3 (주일) 피택자교육 개강 (9/24 종강) 6 (수) 정기당회 17 (주일)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 장애인주일 18-22(월-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메시아의 죽음 60

천사가 하늘로부터
(구조상의 흐름)

가 기록했는가 아니면 중간에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삽입이 되었는가의 문제다. 이 문제는 누가복음의 구조상의 흐름을 살펴볼 때 그 답이 나온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록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의 장면이다. 전혀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 외모를 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눅 3:21). 이를 시작으로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술하였다. 특히 바쁜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쉬지 않았다. “예수는 물막이 한천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눅 5:16).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눅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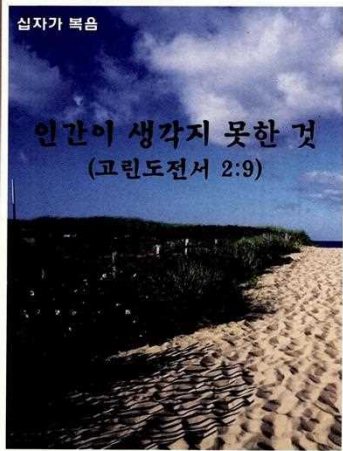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기도를 하신 후에 진행하셨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라고 하느냐”(눅 9:1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니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타나”(눅 9:28~29).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칠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눅 11:1). 십자가 수난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

이와 같이 누가복음의 구조상의 흐름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확신함과 믿음이 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눅 9:30~32)도 기도 중이었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천사의 경배를 언급한 것(히 1:4~7)도 누가가 가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 22:43~44은 의심할 여지없이 누가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음에도 메시아가 오신 밤에 잠자고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버려야만 현실적인 기독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뿐이다. 연구하지 말고, 고백하는 자가 되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드소서.”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인간이 생각지 못한 것
(고린도전서 2:9)

우리는 생각하면서 산다. 이것은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그리고 쉽게 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피조세계 속에 살고 있으며, 매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있다(사 1:1, 74:16, 133:12). 진실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근심이나 걱정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지 못한 것이 있다. “기록되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 cf. 사 64:4).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

● 어떻게 천국이 죄인의 집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며 무지한 죄인이다(롬 3:10, 22~23). 따라서 천국이 죄인의 집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 2:7-8).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집을 죄인들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집을 허락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휟하심을 따라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딤후 1:3).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에게 내려진 것이다(사 103:3~5).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

● 어떻게 천국에 이를 것을 확실하게 하는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믿음뿐이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이 주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믿음은 흐려지며, 천국에서 멀어질 것이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 전혀 필요 없다(엡 2:8-9).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믿음이 천국에 이르도록 한다. 믿음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 아주 단순해 지는 것이다. 나의 생각이 나 어떤 전문인의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은 거듭나는 것이다(요 3:3,5). 어떤 과정을 거쳐 조금씩 나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닌, 완전한 죽음 후에 오는 영적 출생이 거듭남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요 3:16).

● 구원 받은 자가 언제 천국에 가는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자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 5:8).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죄인은 하늘의 나라이 올릴 때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얻으리로다”(고전 15:51-53).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전 15:57). 그날에 모든 성도에게는 인간의 모든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있는 자들도 함께 그를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매여 영원한 진리를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지 못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났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원한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자. 나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청년1부, 그곳에 가다

정들었던 대학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걸음을 옮긴 새내기들을 맞이한 청년1부.

청년1부에 처음과 본 친구자들은 대학부 때와 같은 집의 장소이지만 집의 시간도, 연령층도, 분위기도 전혀 다른 이곳에 대한 어색함과 궁금함이 가득했다. 이런 그들의 궁금증을 마나식 풀어 줄 믿음의 선배들과 대화를 통해서 청년1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럼, 대학부를 떠나 청년1부로 발걸음을 내딛는 친구자들을 따라 청년1부의 여행을 시작해 보자!

Q. 대학부에서 청년1부로 진급하니 너무 어색해요. 선배님은 진급하실 때 어땠었나요?

• 저는 작년에 진급했었어요. 대학부랑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부에서 올라온 친구자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조현규)

•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사실 청년1부에 오고 싶었거든요. 대학부에서 섬기는 입장에서 청년1부에 올라가 선배들에게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대가 됐어요. 광장이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장기만)

Q. 청년1부는 어떤 곳인가요?

• 십자가를 영혼이 미소 짓는 공동체. (홍성준)
• 지친 영혼 가운데 치유함이 있는 곳. (조현규)
• 무엇이지도 다 할 수 있는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한 주님을 바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 (장기만)

•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곳. (장기만)
• 어려움이니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곳. 믿음의 선배들

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문현정)

•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한 곳. (심지호)

Q. 청년1부의 장점이 있나요?

• 그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열정. (홍성준)

• 뜨거운 예배. (조현규)

• 꿈이지 않는 기도. (문현정)

Q. 청년1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나가는 것을 기대해요. (심지호)

• 각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문현정)

Q. 선배님이 청년1부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나 자신은 작아져요. (심지호)

• 보시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예요. (문현정)

•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요. (조현규)

Q. 아쉽게 오늘 '말모이'라는 것을 만나는데 무얼 하는 거죠?

• '말모이'는 진급자를 맞이하는 환영회예요.

참고로 청년2부로 보내는 '보내리'도 있어요. (홍성준)

• 새기기를 맞이하는 대학부의 여는 마당과 같은 거예요. (문현정)

Q. 왜 하는 건가요?

• 청년1부에 처음과 보니까 어땠어요? 어색했죠? 대학부에서 청년1부로 왔을 때 느끼는 어색함을 최소화하고, 적응하기 위해 친교와 말씀으로 청년1부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환경과 보다 생각하면 돼요. (홍성준)

• 보통 낯선 공동체에 오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곳 또한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모이'라는 행사를 통해 알고, 청년1부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철우)

Q. 이번엔 진급한 새내기 청년부원에게 애 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내게지

세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세요. 예수님의 사랑 받으려 오세요. (홍성준)

• 함께 중보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요. (심지호)

• 자리만 지켜주세요. 일단과 보세요. (조현규)

청년1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어색함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뜨거운 은혜의 헌장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며 그 어색함은 이내 소망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익숙한 곳, 친한 사람이 많은 곳에만 있으려 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들. 주님의 은사를 안경짓는 교만에서 벗어나 더 많은 은사를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길 원한다. 어색함, 귀찮음, 혹은 두려움을 떨고 나가자.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담담한 말씀의 은사를 맛 보려 청년1부로.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만 남기고 가는 거다

선교 준비 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를 가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팀원들에게 다 내려놓을 것을 계속 강조했다. 처음 팀 모임부터 선교 마치는 시간까지 섬령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고, 우리는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선교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선교지의 영혼을 향한 눈물을 허락하셨다. 팀원 전부를 품고 아낌없이 기도하며, 오직 선교에만 집중하게 해 달라고 몸부림쳤다. 청년부에서 팀장으로 수고하는 여러 사람을 비롯하여, 경험 많고 말씀에 서 있다는 뛰어난 청년부 팀원들을 데리고 사역에 임하는 일은 그리 수월하지는 않은 것이었다. 일에 능통한 팀원들에게 선교가 일이 되지 않고, 경험과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해 달라고 아낌없이 매달려 기도해야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말씀만 앞세우고 자기 의, 경험을 내려놓도록 매번 강조해야 하는 일은 내게 있어서 치열한 사투였다.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라는 탄식이 나오곤 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만 남기고 가는 거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 선교의 출발점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에 대한 증언자"임을 계속 강조했다. 우리가 밟았던 사역지에서 거절당하는 곳도 있었지만, "뱃다"라고 강하게 거절하는 그들에게 겸손히 섬령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뵤!" 하며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곤 하였다. 기도하면서 온 팀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걸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마다 섬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모습을 보다 주님이 기뻐하심을 느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 남은 자들을 만들어 주시며, 그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도록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성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를 붙잡고 살라신 이 일에 중언" (행 2:32)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인선(권사, 청년1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과/교역	교구	인도자
1481	최예원		6	황세연
1482	서정용		20	김종호
1483	홍성원	양육부	24	홍정호
1484	조민희	중등부	21	오재희
1485	최수빈	양육부	24	김종환
1486	이보은	양육부	1	정민원
1487	오미림	초등2부	1	정호민
1488	오예원	초등1부	1	조종민
1489	김진주	중등부	22	김기춘
1490	조윤준	양육부	20	김정훈
1491	윤원진	대학부	4	최은빈
1492	정원현	대학부	4	김정주
1493	전수진	대학부	5	최은빈
1494	허보은	대학부	1	이바름
1495	손한선	양육부	9	박정민
1496	이규상	양육부	11	이희성
1497	남경옥	중등부	13	한준범
1498	구정원	양육부	21	정현선
1499	박은정	양육부	10	김호성
1500	전준호	고등부	3	김민서
1501	민준호	고등부	3	김민서
1502	이종현	양육부	9	박준근
1503	김지연	양육부	19	김효정
1504	김효정	양육부	21	
1505	최현수	양육부	15	
1506	강주영	초등2부	15	
1507	강민영	초등1부	15	
1508	김지민	초등1부	15	
1509	이정주	양육부	2	
1510	박수현	고등부	3	정필호
1511	박준하	고등부	5	정필호
1512	박성호	고등부	5	박성민
1513	최상준	고등부	8	김옥자C
1514	김경하	양육부	2	고정훈
1515	김정자	양육부	19	최진성

증경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1일(화) - 12월 29일(수)	15교구 4팀	서진원
12월 23일(목) - 12월 31일(금)	22교구 9팀	김종호

이번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4일(화) - 1월 12일(수)	19교구 1팀	이수예

